

10살 초등생·74세 할아버지 '플루트 소통'



오는 11일 금호아트홀에서 첫 공연을 갖는 '1074 플루트 앙상블' 단원들.

1074 플루트 앙상블 42명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서
11일 밤 설레는 첫 무대

올해 일흔 넷인 김종일 전 조선대 공대 교수는 9년 전 정년퇴임 하던 해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처음 그에게 관한 악기는 색소폰. 하지만 김 교수는 플루트를 선택했고 아름다운 소리에 흠뻑 빠져들었다.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한 번씩 꾸준히 레슨을 받은 김 교수는 며칠 후면 정식 공연 무대에 서서 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10세 초등학생부터 74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 단원으로 구성된 '1074 플루트 앙상블'이 오는 11월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가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백악 플루트 앙상블 단장으로 조선대 평생교육원 플루트 전담교수를 맡고 있는 노진자씨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플루트'라는 악기로 다른 세대, 다른 문화를 경험해 온 이들이 하나가 돼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다.

이번에 무대에 서는 이들은 모두 42명. 이 중에는 60~70대 6명도 포함돼 있다. 노년에 플루트를 배우는 건 드문 경우다. 손자, 손녀딸 아이들과 연습을 할 때면 긴장도 되고, 빠른 리듬의 곡을 따라잡지 못해 힘들기도 했지만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은 무척이나 컸다.

노진자씨에게 플루트를 배운 이들은 대전, 충북 제천 등에서 열린 평생학습박람회 초청 공연과 지역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무대에서 온 연극은 있지만 정식으로 대관을 하고, 자신들만의 무대를 꾸미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씨는 "어르신들이 어려운 클래식곡과 리듬감이 빠른 곡들을 연습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혼도 많이 나셨다"며 "힘들기는 하셨지만 한국 한국 배우면서 성취감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트나 색소폰이나 악기를 연주하

시면 작은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가락 등이 같은 연령대에 비해 유연해져요. 호흡을 중요시하는 악기라 폐활량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한다는 건 단순히 악보를 보고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 주법 등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며 머리를 많이 쓰게 만들어줍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에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주제로 논문을 쓴 노 씨는 나이 들어 악기를 연주하는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인희씨의 해설로 열리는 공연은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문을 열며 엘가의 '사랑의 인사',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영화 '시네마 천국' 테마곡, 영화 '여인의 향기' OST, 예민의 '산골소녀의 사랑 이야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나무 바이올린 앙상블이 찬조출연해 드보르작의 '위모레스

크'를 선사한다. 피날레 곡은 '캐리비언의 해적'이다.

"플루트는 소리가 참 예쁘고 좋아요. 함께 연습하는 이들 중에 전공자들의 연주를 들어보면 대금 소리 비슷한 느낌도 나고, 같은 악기라도 다양한 음색을 갖고 있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합주를 할 때면 그 웅장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보혈도 120살까지 보장해 준다는 데저도 하는 데까지 합쳐 연주하고 싶어요. (웃음)." (김종일)

메일로 받은 공연 자료에는 콘서트 날 관객들에게 선보일 영상 자료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 연습에 임하는 단원들의 결연한 표정, 서로 눈을 바라보며 호흡을 맞추는 모습, 환한 미소로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할아버지와 아이의 모습, 시월의 어느 가을날, 당시에 만나게 될 음악으로 하 나 된 아름다운 풍경이다. 전석 초대. 문의 010-3754-4526. /김미은기자 mekim@

인문학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광주시민인문학 25기 강좌

31일까지 전남대 정문 '노블'

깊어 가는 가을 실천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25기 강좌를 연다. 오는 31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정규 강좌와 SEMI 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심리학, 철학, 일문학, 음악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안정선 예술심리상담사가 '심리학으로 가늠해 보는, 관계 속의 '나'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화요일은 교육공간 '오름' 강경필 대표가 '발터 벤야민, 아우라(Aura)의 상실과 대중'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은 '베르그송, 결정론이 아닌 인간 자유의 존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이윤스타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예영(일문학)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허무'로부터 재생을 모색한 전후(戰後), 하야시후미코 '뜬구름'과 '클래식 음악과 친화하기-악기탐험'을 주제로 강의한다. SEMI강좌(토·일 오후 2시)는 '오타쿠 위러의 무비토크 명화여 다시 한 번', '일상 자급자족프로젝트-연극, 콘서트, 미술 등을 체험하는 공간'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skypark@

아시아문화전당 10월 인문 강좌

최원식 인학대 교수 첫 강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근현대 동아시아 세계의 이해'를 주제로 10월 인문 강좌를 개최한다.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 극장3(문화정 보원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열리는 인문 강좌는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첫 강사로 나서는 최원식 인학대 명예교수(사진)는 오는 7일 오후 7시에 '동아시아 다시 보기: 우리에게 돌아오는 의미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임경택 전북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3시에 '메이지 유신과



전후(戰後): 근현대 일본 사회의 두 변혁, 신문화 운동, 서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오후 3시에 '역동의 동남아

시아: 과거와 현재, 내부와 외부 세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래래 교수 한국외대 교수는 28일 오후 7시에 '유목민의 눈으로 본 아시아: 몽골 유목 문화의 전통과 현대'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인문강좌는 무료. 문의 062-601-4048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여성플라자 문화 프로그램

10~11월 매주 수요일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손문금)가 10월~11월(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전남여성, 문화로 통(通)하다-여성의 삶과 문화'를 주제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층 북카페 '혜음'.

10월에는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장르를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일(낮12시)에는 '해설이 있는 음악'이 주제다. 소프라노 정별민, 플루티스트 나리, 피아니스트 최혜원씨가 '눈의 꽃', '명성황후', '겨울왕국',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가요, 뮤지컬, 영화 삽입곡을 들려준다.

14일에는 '해설이 있는 미술'로 박

은숙(목포여성작가 회장)씨가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경애(시인)씨는 21일 문정희 시인의 삶과 문학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논한다. 이어 28일에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시간을 통해 국악인 손정임씨가 판소리 '흥보가'에 등장하는 가족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11월에는 여성의 삶과 문화 관련 영화·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상영작은 '나는 엄마입니다-엄마의 삶'(11월4일), '타파니에서 아침을-어배우의 삶'(11월11일), 등이며 박혜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 교육 강사가 함께 대화를 나눈다. 수강료 무료. 문의 061-260-7324. /김미은기자 mekim@

제5회 정채봉문학상 허혜란 작가 '503호 열차' 선정

'제5회 정채봉문학상'에 전주 출신 작가 허혜란(사진)의 '503호 열차'가 선정됐다. 상금 1000만원.

여수문화재단은 1930년대 옛 소련에 의해 지행된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을 소재로 한국 단편 동화의 수준을 끌어올린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채봉문학상은 순천 출신 아동문학가 정채봉을 기리는 상으로 지난 2011년 정채봉선생 추모위원회가 제정하고 여수

MBC가 주관한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에서 "한계의 공간에서 느끼는 인간의 절망, 그 가운데서도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은 희망의 숨소리처럼 멈추지 않는다"면서 "동일 소재의 작품들이 기존에 이미 있지만 '503호 열차'는 자료들을 녹여 감동과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최종 심사는 이상배(동화작가), 정찬주(소설가), 선안나(동화

작가) 등이 맡았다. 허 작가는 2004년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각기 다른 작품으로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고 2008년 '체로키의 부족'을 출간했다. 올해는 '우산 없이 비올라'는 작품으로 푸른 문학상 새로운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허 작가는 "처음에는 소설을 썼지만 둘째 아이를 10년 만에 가진 뒤 동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주에서 대학교(전



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20대 후반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교사로 근무했을 때 고려인의 실상을 알았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야기뿐 아니라 역사적인 소재를 토대로 한 동화를 많이 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순천시 교량동 순천문화관에서 '동화단지 백일장 대회'와 함께 열린다. 문의 061-650-3352. /박성천기자skypark@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NAVER **간이형 단비플라워 농약**

단비플라워

죽아화원3던 근조화원3던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시외 -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덕지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